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14년

Email: VoiceOfNM@gmail.com

2014년 5월 18일 아시아문화축제 공연을 앞두고 잔디밭에서 연습중인 고전무용단원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가운 햇볕이 강렬한 한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모 저모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의 아픔을 가슴 저리게 가는 곳마다 느낄수 있었습니다. 뉴멕시코 한인들의 대표로 참가하여 위로금 모금에도 참여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뉴멕시코 한인회장 조규자 올림



1. Ojo Caliente 어버이 온천 관광 (5월9일)
2. 매주 수요일 12시에 어버이 점심식사 모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끔 장소 변경이 있으니 문의는 임낸시 부회장 505-610-5258, 김경숙 505-228-5341 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5월 18일 Veteran's Park 에서 있었던 아시안축제 - 군무, 이희정(지도), 임낸시, 김영신, 최신옥, 김태원, 박해성 님들의 열성과 정열적인 부채춤의 아름다움은 Albuquerque Journal 신문에 실려 우리 한국의 문화 홍보에 일역을 당당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4. 7월 16일 부터 매주 수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 성인 유화 교실을 개강합니다. (강사:박영숙, 장소:한인회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문의는 조문성 님(505-270-8483)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님은 현재 Park Fine

2014년 7/8월호 내용

- 표지 | 표지사진/한인회장인사 : 1
-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한국학교 '수업의 최고 달인'으로 전세계 한국학교와 소통 | 신미경 : 2
- 앨범 |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행사 : 3
- 기행문 | 오후 칼리엔테 온천에 다녀와서 | 김영신 : 4
- 칼럼 | '1911년'에 생긴 일 | 이은주 : 5
- 오피니언 | 부끄러움도 기억하자 | 이진영 : 7
- 수필 | 호랑이 -백수의 왕 | 이정길 : 8
- 미술 | 오병이어의 기적 : 9
- 칼럼 | 묵상호흡 | 김기천 : 10
- 수필 | 나의 노르망디...나의 앨버커키 | 윤성열 : 11
- 영화소개 | <Son of God>은 어떤 영화일까? : 13
- 지역사회소식 | Paseo/I-25 교차로공사 : 14
- 역사상식 | 미국의 잉태 | 전용배 : 15
- 수필 | 언니 | 최미나 : 16
-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 17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18

Art 갤러리관장, University of New Mexico CE 강사이십니다. 경기대학 대학원 수료. 파리 Des But yes Chamont At Institutue 수료. 상명대학교 미술 교육학과 졸업, 개인전 10회 및 그룹전 다수(한국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이태리 프랑스 터키 등)

뉴멕시코한국학교, '수업의 최고 달인'으로 전 세계 한국학교와 소통하다!!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신미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번 2014년도 봄 학기를 마치면서 한국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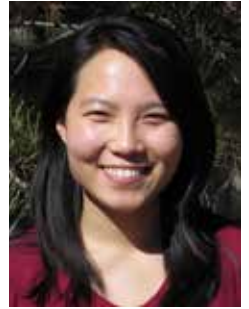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올 봄에 시행한 전 세계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대상 '수업의 달인' 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여러 선생님이 공모에 함께 참여하셔서 당선에 힘을 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은주 선생님께서 그동안 한국학교에서 직접 사용해 오신 다양한 수업 자료와 '최단기 한글 깨치기' 등 선생님만의 여러 가지 한글교육 노하우가 최고의 수업 아이디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가 이번에 1등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당선의 주인공이신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3년 봄 부터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자문, 교육담당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은주 선생님의 한글 수업 자료 및 교수 아이디어는 현재 재외 동포 재단 한국어 교육 지원 웹사이트(<http://study.korean.net>)에 게재되어 있으며 재외 한국어 교사 포함 한국어 교육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한글학교 교사 양성과 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LA소재의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글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서로간의 발전을 한층 더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오는 8월에 LA에서 있을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주최의 제 1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저와 이은주 선생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수업의 달인' 1등 수상을 계기로 이번 학술대회 기간에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글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총 5박 6일의 이번 LA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 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 수집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도회지의 여러 큰 학교들에 뒤지지 않는 우리 학교만의 경쟁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올 11월에는 연합회 발간의 한글학교 회보/자료집인 제32호 '한얼지'를 통해 더 많은 한글학교와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의 1등 당선의 수업 자료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여름과 가을에 걸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재외 한국어 교사 대상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 과정에 저희 학교에서 저를 비롯하여 정지에 교감 선생님과 이은주 선생님께서 정부 지원 연수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학교 교사진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 전체의 발전을 견인해 갈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업의 달인대회를 통해 우리 뉴멕시코 주와 한국학교가 미국 및 전 세계의 한글학교들 가운데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1등 상품(현재 우리 한국학교에 가장 필요한 프로젝터)도 상품이지만, 그간 우리 한국학교만의 커리큘럼이나 수업방식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교사의 땀방울이 일궈낸 이번 결과가 앞으로 우리 학교를 더욱 전진하게 할 귀중한 원동력이 되리라 믿기에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조규자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뉴멕시코 한인회의 후원 아래 매 학기 신입교사 양성 세미나, 경력 교

신미경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사 양성 및 학교 내/외 교사 컨퍼런스, 학부모 세미나 등을 통해 학교 안, 밖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고 뉴멕시코 지역사회 내에 한국어 뿌리 교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국학교에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한인 교민 여러분들 및 학부모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앞으로도 내실과 더 나은 체계를 갖춘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당선자 발표입니다)

1등 (3개교) : 프로젝트 각 1개

- *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 동그라미한글학교(주후쿠오카총영사관)
- * 토고한글학교(주가나대사관)

2등 (3개교) : 한국어·한국문화 배우기 교구 각 1세트

- * 다솜한국학교(주뉴욕총영사관)
- * 카잔볼가비전센터한글학교(주러시아대사관)
- * 칼스루에한글학교(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3등 (15개교) : 한국어·한국문화 배우기 용판교구세트 각 1세트

- 1) 디종한글학교(주프랑스대사관)
- 2) 리하이밸리한글학교(주뉴욕총영사관)
- 3) 버금힐한인성당한글학교(주시드니총영사관)
- 4) 블레넘한글학교(주뉴질랜드대사관)
- 5) 비스바덴한글학교(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6) 사스카툰한글학교(주밴쿠버총영사관)
- 7) 서부호주한글학교(주호주연방대사관)
- 8) 신명학교(주오사카총영사관)
- 9) 은혜한국학교(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10) 재핀란드한글학교(주핀란드대사관)
- 11) 천진한글학교(주중국대사관)
- 12) 피지한글학교(주피지대사관)
- 13) 헤주한글학교(주광저우총영사관)
- 14) 호화호특한글학교(주중국대사관)
- 15) 황도우리말교실(주칭다오총영사관)



사진: 상품으로 받은 프로젝터 ■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

한국어 교사 모집

한국어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뿌리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 아동의 이중 언어 및 다중 언어 습득 관련 분야 전공자 및 비전공자 모두를 환영하오니 이번 한국학교 교사 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직접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으신 모든 어머니들을 환영합니다!

- 수업 시간: 토요일 아침 9시 - 낮 12시 (K-12)
금요일 오후반 (5학년 이상 학생반)
- 수업 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20)
- 교사 봉사료: 시간당 \$13 부터
- 연락처: 한국학교 교장 신미경 505-453-9015 (mks0320@yahoo.com)

인디언 과학교실 교사 모집

나바호 인디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과학과 산수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인디언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큰 보람이 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연락처: 한상언교수 617-871-6122 (sehan@unm.edu)
광야의 소리 (VoiceOfNM@gmail.com)



뉴멕시코 한인회 행사 사진 모음



이희정님의 고전무용.



아시아문화축제에서 한국무용 공연



아시아문화축제에 참여한 무용팀
(2014.5.18)



홍파오 베트남 식당 (2014.6.4)
조규자회장, 김영신이사가 대접.



Momorial Day, 한국 참전 용사이신
Morehead 씨와 함께



어버이님 온천관광 팀



Ch. 13 KRQE Anchor/Reporter, Katie Kim과 함께

오호 칼리엔테(Ojo Caliente Hot Springs) 온천에 다녀와서...

알버커키에 산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인데, 말로만 듣고 가 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헌데 한인회에서 어버이 관광을 이 곳으로 가고 운전자가 필요하다 해 아 이 때다 싶어 발런티어로 나섰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조트 중 가장 오래 된 자연 건강 온천의 하나로 145년째 접어드는 곳입니다.

I-25 North 에서 84/ US-285 north으로 알버커키에서 약 2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하이킹 및 자전거 산책로를 통해 짜릿함을 느낄수 있고, 뉴멕시코 북부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탐험해 볼수도 있습니다. 오호 칼리엔테 미네랄 스프링스는 독특한 4 개 조합의 다른 유황 무료 광천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Lithia, Iron, Soda and Arsenic으로 활력 표면에 김이 하루 이상 100,000 갤런으로

따뜻하게 무수한 세기 동안 자연스럽 게 몸,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전설적인 오아시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저희 한인회에서, 어버이날을 기해 어버이 관광 장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온천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온수물에 몸을 담그는 거 보다 더 좋으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금요일 오후 4시쯤 벤 두 대를

랜트해서 가는 도중, 중간 거리인 Buffalo Thunder Casino를 들려서 맛있는 Sea Food 부페로 배를 채우고 7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아~~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확 터진 공간들 그리고 산등성이들,

저희는 흥분감을 억제하며 문 닫기 전(저녁 9시) 빨리빨리 서둘러서 온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탕 저 탕 옮겨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쳤던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들의 감탄사들 “아~ 좋다~”가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방 세 개를 잡고 17분들의 그 하루는 저물어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저와 낸시

부회장님은 하이킹에 나섰습니다. 그리 높진 않았지만 자잘한 돌들이 많아 몇 번이나 미끌어질 뻔은 했지만 즐겁고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천 문을 열자마자 (오전 8시) 우린 모두 다시 온천탕에 들어갔고, 개운한 몸과 맘으로 이 안에 있는

김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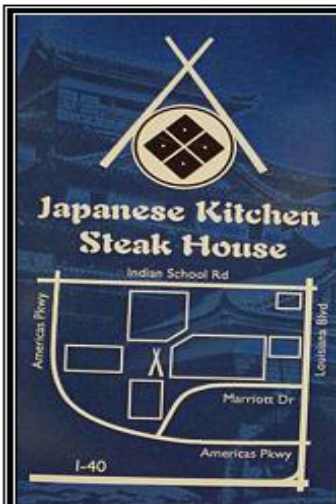
뉴멕시코 한인회 이사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아침으로 해서11시쯤 이 곳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Rest Area에 스톱해서 도시락 싸왔던 한국음식들 다시 풀러서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던지요...

연인 또는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 모두에게 다 좋은 휴양지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가 보세요! ■



오호 칼리엔테 어버이 온천 관광 기념 사진 2014.5.10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1911 년’에 있었던 일

마감에 임박해 부족한 내용을 잘 다듬을 틈도 없이 제출했던 내용으로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 1) 니 이름이 뭐꼬? (가르치자니 어렵고 넘어가자니 찝찝한 ‘자음’의 이름 쉽게 익히기)
- 2) 이것만 알아도 밥은 안 굶는데요. 빈칸에 쓱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3) ‘문장’이라는 고지를 코앞에 두고! -한국인의 ‘정’처럼 착착 붙는 ‘조사’ 공부.
- 4) 매일 매일 사용해요-동사(일과표) - 일 년에 한 번 써먹을까 말까 한 내용은 나중에 가르쳐도 늦지 않아요!
- 5) 미국의 12~15세, 한국어 배우기 초보자가 하고 싶어하는 한국말이 뭘지 아세요?
이 안에 너 있다! (피해갈 수 없는 육하원칙)
- 6) 아이쿠 ‘동사’가 사람 잡네! (너무 복잡한 동사, 너 나중에 보자. 맨 뒤로 가 있어!)-영어와 다른 동사, 동사의 위치는 문장의 끝입니다. 시제, 공손법, 서법, 사투리, 규칙/불규칙, 문체에 따라 요리조리 활용하는 복잡한 동사 공부.

이렇게 여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가정에서 한국말을 연습할 대상이 아예 없거나 혹은 부족한 환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분량 관계상 한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고 이와 같은 수업 내용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특히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현재 재외 동포재단에 소속된 전 세계 한국학교 1,918개교, 미국 전체에 1,070개, LA에 약 300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학교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에 단 하나뿐인 통합학교라는 점이다.

통합한국학교만의 장단점이 있어서 잘 운영할 경우엔 인적자원이나 에너지를 한군데로 총 집결할 수 있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대상자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자칫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상유지에 만족하다 보면 통합학교라는 이름만 있을 뿐 다른 좋은 학교가 세워져 잘 운영될 기회를 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끔 한인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한글학교 관계로 상담하러 오는 외국인 청년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을 학교에서 다시 볼 기회는 드물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장소의 문제, 교사 양성의 문제, 시간적인 여러 문제, 후원의 문제 등 학교의 많은 열악한 여건 때문일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학교가 통합학교라는 장점을 잘 살려서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장학회나 후원 이사회 등을 조직하여 한국학교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한글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이만하고 오늘은 지난번 ‘광야의 소리’ 편집위원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준비해 두었던 재미난 주제로 꾸며보고자 한다.

이은주 사모
주님의 교회
한국학교 자문/교사



나의 이름 뒤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모’와 ‘교사’라는 타이틀에 가장 알맞은 내용을 다루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다. 이 두 가지가 곧 나 자신이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그림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이요, 또 하나 내 안에 귀한 것은 언제나 어느 때고 어떤 표현으로도 막힘 없이 ‘끄적끄적’할 수 있는 ‘한글’이 있다는 것.

오늘 소개할 내용과 함께 등장할 인물은 세종대왕과 춘원 이광수, 예수 그리스도시다. 서로 연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척 흥미롭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에 반포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으니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아서 1장 5절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라는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에 세종대왕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글은 예정된 일이며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선물임이 틀림없다.

조선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사대부 문화와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바리새인의 상황은 참으로 비슷했던 것 같다. 좁디좁은 유대를 넘어 로마를 지나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에 있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선민사상에 깊이 젖은, 그리스도의 첫 등장과 함께 무한 타과의 대상으로 “나요!”를 외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그룹이 있었다면, 좁디좁은 나라에서 권력다툼을 일삼으며 세계로 나가는 문을 굳게 닫은, 세종대왕이 헤치고 나가야 할 세력은 한문에 능한 양반계급 즉 언제까지나 대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아 이젠 더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다. 죄의 노예가 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창녀와 세리의 친구로 오신 그분 안에 어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권위주의가 있었을까?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 또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자 애민이며 박애였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들만 평생 먹을 수 있는 밥상에 천민, 평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둘러앉게 했으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양반들이야말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약한지교! 네 이놈들,

어느 안전에서 감히! 당장 독상을 따로 차려오지 못할까?”라고 언성을 높이다 못해 뒷목덜미를 잡고 “아이고!” 하며 쓰러질 일이었을 것이다.

쉽고도 편한 한글을 만들어 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연모 합니다!’라는 소식 하나 전하지 못해 사모하는 이 놓치지 말고 사랑도 나누고, 그걸 가지고 권력자, 기독교자 눈치 보지 말고 정치에도 밀고 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글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찾을 많은 기회와 멀어지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소하는 일도, 잘못된 재판 앞에 맞서는 일도, 농사에 대한 간단한 기록도 못하다 보니 그 살림이 나아질 길이 없었다. 그것이 나였으며 그들이 우리 중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는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의 삶과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문맹’이란 ‘깜깜함’ 곧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에 이런 이들 앞에 왕이 나서서 글자를 만들어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찌 그 큰 산을 넘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세종대왕의 곁에는 늘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현실을 헤쳐나갈 힘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글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백성을 향한 자주와 독립과 애민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글이 대한영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쓰였느냐 하면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 위치가 여전히 한문 아래 있었고 거기서 일어났을 갈등은 가히 짐작하



기 어렵지 않다. 기독교자들이 그저 손 놓고 있었을 리가 없다. 여론몰이를 했을 것이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했고, 줄여서 ‘정음(正音)’이라 불리던 것을 본래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언문(諺文)’, ‘언서(諺書)’, ‘반절(反切)’로 부르거나, 혹은 ‘암글(여성들이 배우는 글)’, ‘아햇글(어린이들이 배우는 글)’이라고 낮추어 불렀다고 알려졌다. 선비가 쓸만한 글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단, 암글, 아햇글이라는 표현은 그 출전이 불분명하다.)

한글이 이렇게 그 본뜻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그라져 갈 무렵에 이 백성을 향한 긍휼과 크신 계획을 가지신 주님의 손길이 ‘한글’에 뚜렷이 나타나는 사건이 생긴다. 1911년 성서 공회가 친구약 성서를 완역해 낸 것이다. 2011년 4월 최초의 한글 성경인 ‘성경 전서’ 발간 100주년을 맞아 대한성서공회는 연동교회에서 기념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이만열 교수는 “한국에 성경과 기독교가 수용된 과정은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현지의 언어와

문자를 익힌 후에 성경 번역이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성경이 번역 출판됐고 그 출판된 성경이 들어와 기독교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땅을 밟은 적이 없는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 덕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조선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은 전국에 퍼져 나갔다. 또 성경의 번역·출판이 한국인의 언어와 문자 생활, 문학 작품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세 봉건적인 사상을 변화시키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이 독일어에 미친 영향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1911년 친구약 66권이 순 한글로 번역, 인쇄되어 나온 것은 15세기 한글 창제 이래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어휘를 담은 것이 되어 한글로 모든 사상,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는 ‘잠들었던’ 한글을 깨웠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멸절의 위기’에서 한글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육성득 UCLA 석좌교수도 “400년간 무시당하던 한글이 먼지를 털고 성경의 옷을 입고 나서자 그 우수성과 편리성과 풍부성은 말쑥 전파에 크게 쓰임 받았다.”면서 “나아가 민중 언어가 성경 언어로 격상되면서 민중의 지적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경제적 자립과 신분 해방의 토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때 조선 정부는 개신교를 국교로 삼을 것을 고려했다. 박영효는 “조선이 개화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하고 국교로 삼기를 고려했다. 이 땅에 들어온 여러 선교사 할버트나 언더우드도 ‘고종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교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이를 반대하고, 단지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되지 특혜를 바라지 않았다. 자신들의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권력을 가진 한국의 지배 계층보다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과 보통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여기에서 나는 이 땅의 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을 떠올리고 싶다. 여자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문맹의 길로 가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여인이 성경을 통해 문맹을 깨쳤을까? 어찌 어찌하여 한글은 겨우 깨쳤다고 하자. 애써 배운 글을 써 볼 기회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한 권의 성경은 호롱불 아래서 글을 읽는다는 행복감과 더불어 뜨거운 믿음을 동시에 주었던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 된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그를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지식인, 또한 붓을 잡은 자로서의 그를 소개하기에 가장 알맞은 표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문학이다, 2009.9.9, 나무야이야기’ 장석주님의 표현을 빌리고자 한다. - 흠 많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대문학의 아버지 이광수[李光洙], 이 공적 아버지는 고마운 존재면서도 흠이 많은 아버지다. 현대 한국문학의 선구자로서 그만큼 많은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1917년 소설 ‘무정[無情]’으로 문단에 데뷔한다. ‘무정’은 신소설의 과도기적 성격을 탈피한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 장편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순 국문체로 126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연재 당시 인기도 대단하여 청춘 남녀를 중심으로 한 독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남긴 말이 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회(예수교회)의 음역)이다. 귀중한 친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7쪽에 계속)

부끄러움도 기억하자



이진영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4·16 세월호 참사는 미국 뉴욕의 9·11 테러와 비교된다. 9·11은 외적의 공격을 받은 비극이고 세월호는 우리의 무능이 부른 참사지만, 9·11이 그러하듯 세월호 참사도 한국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됐다. 본토는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자신감은 자살 테러로 무너졌고,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가장 먼저 도망가는 나라로 전락했다.

2001년 발생한 9·11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공간이 사고 현장에 ‘부재의 반주(Reflecting Absence)’라는 이름으로 조성한 9·11 추모공원이다. 이스라엘 출신 미국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와 조경 건축가 피터 워커의 작품이다. 이들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에 각각 깊이 9m, 면적 4000㎡(약 1210평) 규모로 쌍둥이 연못을 만들었다. 테러 희생자 약 3000명의 이름이 새겨진 가장자리에서 그라운드 체로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분수 연못이다. 연못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 가운데는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아 ‘생존 나무’라 불리는 배나무가 있다. 15일에는 공원 인근에 완공한 추모박물관 헌정식도 열린다.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땅값이 비싼 맨해튼에 조성된 대형 추모시설은 테러의 아픔을 드러내며 세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상실의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자리엔, 사고 몇 시간 뒤엔 말끔해지는 교통사고 현장처럼 여전히 더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더 빠르게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사고를 기억하는 데 인색하다. 선원을 모두 살리고 배와 함께 침몰한 선장을 기리는 추모 동상은 있지만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를 증언하는 시설물은 없다. 502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32명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마찬가지다.

9·11 추모공원은 쌍둥이 빌딩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9·11 당시 항공기가 건물 벽을 들이받아 184명이 목숨을 잃은

펜타곤은 파괴된 부분을 복구한 뒤 희생자들을 기리는 예배당과 추모의 복도를 짓고, 건물 밖에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한국 국방부라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부끄러움을 기억하기로는 독일이 한 수 위다. 베를린 중심의 2만 ㎡가 넘는 땅엔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묘지처럼 늘어서 있다. 유대인 출신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먼의 설계로 종전 60주년인 2005년 5월 개관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다. 수도 한복판에 ‘우린 가해자’라고 어두운 과거를 공언하는 이 상징물은 독일의 성숙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명작으로 꼽힌다.

우리도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곳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의사자들의 살신성인 정신과 구조작업에 나섰던 이들의 희생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왜 일어났고, 구조를 책임진 이들은 소임을 다했는지 낱알이 따져 묻는 곳이어야 한다. 뱃일을 하려는 이들에게 ‘시멘트(뱃사람 정신)’를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는 못한 어른이 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족들은 소중한 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는 공간이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할 용기가 없다면 부끄러운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

Source: news.donga.com 2014-05-13 (전재허가 2014.5.14)

‘1911년’에 있었던 일 <6쪽에서 계속>

석일에 중국 경전의 언해가 있었으나 소위 토만 달았을 뿐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일 항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근대문학의 선구자 이광수는 1917년에 쓴 글에서 한글 성서 번역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가던 것이 1911년 성경이 번역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게 되었다. 그리고 1917년 ‘무정’도 성경을 통해 한글을 읽게 된 많은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이 읽고 한글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지면 관계상 자세히 쓸 수 없어 아쉽지만, 조선 중기 허균의 최초 국문소설인 홍길동전도 한글을 이때만 큼 크게 꽃피울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성경 번역이 한글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우리글은 1913년 주시경에 의해 ‘하나’, 또는 ‘큰’의 뜻을 가진 ‘한글’이라

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금까지 이르렀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왜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우리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잃지 않았다. 우리 민족이 우리 말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더 한글 교육에 열심을 내고 싶고, 한글을 꼭 가르치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고, 한글학교가 그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서울=연합뉴스 기사)

(위에 내용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

호랑이 - 백수의 왕

시베리아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널리 퍼져 살던 호랑이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멸종되어, '호랑이의 나라'라고 불리던 한반도에서 194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백두산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민속과 설화 그리고 속담에 나타나는 호랑이는 우리가 호랑이와 얼마나 가깝게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곰방대를 문 친한 친구,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인 반면 사람을 해하고,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엇갈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상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영물이었다.

호랑이는 당당하면서도 의젓한 몸짓에서 우리나라는 위엄과 우렁찬 포효로 사람을 압도한다. 3미터가 넘는 몸길이에, 무게도 300킬로그램에 달한다. 흰 배, 긴 꼬리, 몸 전체에 새겨진 줄무늬가 사람의 마음을 끈다. 하루에 100킬로미터를 달리는가 하면 먹이를 낚아챌 때는 8미터 높이까지 뛰어오른다. 날카로운 엄니와 갈고리 모양의 발톱으로 먹이 감을 사냥하며, 낮에는 숲 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해가 지거나 뜰 때면 활동한다. 호랑이는 숨어 지내며 방랑하는 백수의 왕이다.

공포의 대상이었으면서도 우리 민속에서 호랑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었고 병마를 막아주며 행운과 복의 기운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생각되었다. 우리의 민화에서는 무섭거나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거기에는 호랑이가 삼재(수재, 화재, 풍재)와 세 가지 고통(병란, 질병, 기근)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밖에 도자기, 짐승의 뿔로 만든 아름다운 피리, 나전칠기, 목각공예 등의 생활용품에 소나무나 까치와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그려 넣은 부적을 사용했는가 하면 벼루에까지 호랑이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구비문학에서도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이며, 때로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약자나 효자 또는 의인을 도와주며, 부정을 멀리하는 신비한 동물이다.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호질' 虎叱에서는 호랑이가 학자를 꾸짖는다. 넓고 깊은 학문에 도덕가로 알려져 왕의 표창까지 받은 학자가 동네의 수절과부와 사통하던 중 성이 각각 다른 과부의 아들 다섯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다 호랑이와 맞닥뜨려 호된 꾸지람을 듣는다. 인격화한 호랑이를 등장시켜 당대 선비문화의 허위와 모순을 통쾌하게 비판한 풍자문학의 극치였다.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제1차 세계대전과 6.25가 호랑이 해에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호랑이 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강직하며, 성급하기는 하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주에 범이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직자나 예술가가 많다. 조숙하며 통솔력이 강하고 원기 왕성한 반면 실재 없이 설쳐대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천성적으로 의리와 정의를 중시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호랑이 띠 사람들은 결단력 있고 정열적이며, 덕을 쌓으면 많은 사람 위에 설 수 있어 정·재계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우두머리 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동물은? 하고 물으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호랑이 아니면 사자일 터인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언제든가, 철망으로 둘러막은 우리에 덩치가 비슷한 사자와 호랑이를 밀어 넣어 싸움을 유도한 적이 있었다. 둘은 서로 싸움 의도가 없는 듯 보였으나 성가시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발톱을 휘둘렀지만 둘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누가 이겼다고 판단할 수 없이 싸움은 끝났다. 요즘에는 인공수정으로 사자와 호랑이의 잡종을 만들기도 한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사자와는 달리 호랑이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지어 산다. 한 쌍이 살아가는 데에는 적어도 400평방 킬로미터의 산림이 필요하며, 그 넓이는 지리산국립공원의 크기와 맞먹는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들을 백두 대간에 풀어놓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여태껏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온전한 생태계의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터. 백두 대간을 따라 남북으로 내달리던 호랑이가 다시 한반도의 산 속에 자리잡아 살게 되려면 통일되어 모든 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야 가능할 것이다. 일제의 강점에 이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때문에

더는 볼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의 호랑이. 인도와 네팔에서는 세계야생동물기금의 도움으로 멸종위기를 넘기고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호랑이 담배 먹을 적'이라는 표현은 <9쪽에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

이번호에서 소개하는 성화는 이태리의 17세기 바로크(Baroque)시대의 화가 베르나르도 스트로치(Bernardo Strozzi)의 작품이다.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Feeding the Multitude”이며 이를 직역하면 “군중을 먹이시다”로 번역할 수 있다.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두 번의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셨는데 여기 소개하는 그림은 첫번째의 기적으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기적을 간단히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으로 부르는데 예수께서 한 소년으로부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여 5천 명의 군중을 먹였다는 기적을 가리킨다.

화가 스트로치는 이태리 제노바(영어:Genoa)에서 1581년 출생해서 승려생활을 했고 말기에는 베네치아(영어:Venice)로 옮겨서 1644년 까지 작품활동을 했다. 여기 소개한 그림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푸슈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15절에 기록된 새번역 성경 내용을 여기에 옮겨본다. 성경을 읽고 그림을 보면 화가가 무엇을 의도 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와 오병이어를 담은 광주리를 들은 어린아이는 분명하지만 주위의 다른 인물은 식별이 어렵다. 아래의 성경을 읽고 그림중 인물중에 누가 빌립이고 누가 안드레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베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호랑이-백수의 왕 <8쪽에서 계속>

지금과는 형편이 아주 다른 까마득한 옛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어렸을 적 시골마을에서 희미한 등잔불로 책을 읽으며 자랐다. 시간상으로나 마음에서도 그때가 호랑이 담배 먹을 적이 되어버렸다. 한편, 1998년은 무인년 호랑이 해이었다. IMF한파가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게 한 '97년을 보낸 뒤 맞이한 그 해의 첫날, 각 방송사에서는 일제히 호랑이특집을 내보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새겨 새로운 도약과

힘찬 비상을 기약하자는 뜻에서였다. 아무리 위급한 상태에 내몰려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그때 똑똑히 보았다. 남들이 놀랄 만큼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있다. 호랑이는 우리 문화와 민족의 특성을 참으로 잘 나타내주는 동물이다. ■

묵상 호흡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먼저 눈을 감으세요. 나중엔 눈을 뜨고 해도 좋습니다. 처음이니까 눈을 감고 시작을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 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 숨을 들이 마시십시오.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숨을 천천히 의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로 입으로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숨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에도 천천히 몸에서 빠져 나가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내쉬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김 목사는 눈을 감는다. 주변 사람들이 김 목사에게 시선을 집중하지만 김 목사의 얼굴은 주변의 모든 것에 껴넘치 않는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이다. 숨을 의식하려 해서 그 런지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쉬는 시간이 꽤나 걸린다. 상대적으로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는 조금 긴 것 같다. 한 번 숨을 내 쉰 후에 김 목사는 눈을 뜨고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차분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요. 사람 모양만 갖춘 흙덩어리에 불 과하지요. 사람이 된 것은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즉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후에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은 숨을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숨 쉬는 호흡 또한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가 복식호흡으로 호흡조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악가들은 배가 불룩해질 정도로 호흡을 들이마시고는 앞에 놓인 초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숨을 내 쉬는 훈련을 하지요.

목사님, 구약 말고 그러면 신약에서 호흡에 관한 말씀이 있나요? 생뚱맞게 박 집사가 물어왔다.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기록되어있지요. 나타나셔서 거듭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19, 21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호흡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호흡”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식 없이 숨을 쉬며 생활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숨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스리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평화를 경험할 겁니다. 본래 평화를 히브리어로는 “shalom”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이기에 영어는 “peace”로만 번역해놓았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등 다르게 번역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통일하자면 “평화”이지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 쉰 것입니다. 호흡을 잘 다스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지요. 진정 한 회개는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 집사가 말을 끊으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보니 그것 불교에서 하는 참선이나, 단전호흡 등 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지요. 기원이 어디인가? 무엇이 먼저인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인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을 통해서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숨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 즉 호흡에는 하나님의 신비, 능력이 들어있지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런 호흡의 신비, 능력을 사실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단전호흡법은 하나님의 생기인 호흡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또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불교의 참선 명상 또한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 그 비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을 경험하도록 기록되어 있던 것이지요.

목사님, 불교에서 명상을 위한 호흡과 기독교의 묵상 호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명상이란 생각을 비우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묵상호흡은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숨을 들이쉬는 것이지요. 나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 한 번에도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명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묵상기도”라고도 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첫 편인 1편에서는 묵상기도가 언급 되고 5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언급되고 있지요.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잃어버린 전통인 “묵상기도”도 회복해야 합니다.

은행 안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 최 집사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은행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갔더니 “잠시 중단”이라는 화면이 뜬 것이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은행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다행히 한 사람이 은행 출구에 있었다. 금방 자신의 순서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은행원이 그 사람을 붙잡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16쪽에 계속>

수필

나의 노르망디, 나의 노르망디, 나의 앨버커키



윤성열 목사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지난 달 6월 6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바로 1944년 6월 6일 그 날이다. 불과 수시간의 전투였지만 분당 1200발을 발사하는 독일군의 강력한 MG 42 기관총에 연합군은 일반 명(4414명 전사 포함)의 엘리트 군사를 잃은, 그야말로 노르망디 해안을 피로 물들였던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아! 그날이구나!’ 하고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70 주년을 맞이하여 Obama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던진 그들의 희생을 기념한다니 두어 달 전부터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들면서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그 노르망디 해안, 나라의 부름 앞에 젊은이들이 피로 바다를 물들이며 용감히 싸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로 지켜낸 그 현장 말이다.

잠시 생각이 4월 30일로 돌아간다. 내가 섬기는 나이스크(NYSKC, 예배회복운동)라는 사역단체(NYSKC World Mission, NY,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에서 유명한 Football Hall of Fame이 있는 오하이오주의 Canton 이라는 도시에 Goshe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픈 하우스를 성대히 가졌다. 백인 일색의 전형적인, 보수적인 타운, 지역 유지를 포함하여 400면 정도의 게스트가 참석하였는데 감사하게도 그들 앞에서 나는 스피치를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 피를 흘리고, 특히 6.25 한국전에 피 흘려 도운 그들 (37,000명 이상)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한국은 불가능했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할 때 나는 들었다. 그들로부터 뿜쳐오던 그 커다란 박수소리를...

천재 스피치 감독이 만든 Saving Private Ryan(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년) 라는 영화중의 영화를 떠올리며 나는 이 날, 6월 6일 오전 군장(?)을 차리고, 사실 군장이라야 몰 두 병이 전부이지만 빛진 마음으로 오전 11시 San Mateo와 Montgomery 근처의 집을 떠나 San Mateo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100도가 훌쩍 넘는 더위가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 교회까지는 원웨이 13마일, 하프 마라톤 거리이다. ‘남자라면 한 번은 마라톤 홀코스(26마일)을 뛰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언젠가 집에서 교회까지 한번 뛰어가보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거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몸에 느껴진다.

한 4마일쯤 뛰었나 숨이 펑펑 찬다. 하기가 그 동안 잠시 소홀한 틈을 타고 내 ‘배둘레햄’(허리사이즈)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부끄러운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체중이 늘면서 정말 내가 은근히 비판하던 소위 ‘넉넉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다 내일 된다. 내 얘기가. 오래 전 동부에 살 때 그랜드 캐년을 다녀 오면서 앨버커키를 처음 지났다. 이름도 좀 이상하고 광야를 달리다가 툭 튀어나온 도시, 동부와는 달리 담도 있고 영 아닌 것 같은 인상, 마침 뭇 좀 먹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나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통과하면서 들었던 생각, “에이, 누가 이런데 사나?” 조롱하듯 빠져나간 기억이 생생한데 알았는가? 수년 후 내가 목사가 되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때로 마음 시리며 살아갈 줄을...” 생각과 말을 조심하자. 다 내일 된다..

각오를 새롭게 한다. “성열아, 몸이 먼저다. 네 몸 잘 가꾸지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한다.” 그렇다. 몸도 잘 가꾸어야 한다. 출발 전 저울 위에 정직하게 올라 몸무게를 잴 때 그 긴장감, 지난 1년 동안 두려움으로(?) 오르지 못했던 그 저울에 달리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참 용기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리라.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울의 무지막지한 숫자에...아! 우째 이런 일이. 혹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다니엘 5:25) 이면?

더웠다. 정말 더웠다. 뛰면서, 가끔 속보로 걸으면서, 영화의 장면, 그 처절한 상륙작전의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 내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을까? 나는 Captain Miller(툼 행크스역)및 병사들처럼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영화 속의 처절한 장면, 특히 겁에 질린 Corporal Upham(Jeremy Davis역)이 동료가 코앞에서 독일군의 대검에 심장에 꽂혀 죽을 때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는 장면(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얼마나 비통해 했던가.

Central Ave.로 접어들어 서쪽으로 달린다. 어느 모텔 앞을 지나는데 저만치 목발을 짚은 한 중년의 남자가, 아, 보니 한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없는데 자동차에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순간 나의 멀쩡한 두 다리의 허벅지에 땀살이 돋는 것 같다. 또 조금 가다 보니 이번에는 어느 중년 여인, 그런데 그 손에 흰 지팡이 ... 순간 마음이 뭉클하다. ‘나의 시력을 좀 줄 수 있다면...’ 멀쩡한 두 다리 두 눈을 가지고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단지 내가 그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고, 죄 된 일에 헛되이 사용한 것이 너무나 통분할 따름이다.

모자를 썼지만 머리가 서서히 익어가는 느낌이다. 뜨겁다. 성경의 요나가 생각이 난다. 숨이 펑펑 차오른다. 마음을 더욱 동여매지만 이제 속보로 걷는 것으로 몸과 타협한다. “누가 앨버커키를 작다고 하는가? 뛰어보라. 길이 끝도 없다.” Frontier 식당 앞에 쫓 오니 그만 두고 그냥 집으로 갈까 갈등이 생긴다. > 그만 두고 돌아 갈까? 아니다. 그것은 사내답지 못하다. 전투의 장면들 그 병사들을 생각해보라 그래 계속 전진이다. 마음속으로 군가를 불러본다.



'84년 '청남대' 경호근무 시 지역대원들과 함께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배례모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랴
하늘로 뛰어 솟아
구름을 찬다 검은 배례
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 길이
지킨다. 안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아~아 검은 배례
무적의 사나이”



점프 전 청주 공군 비행장에서(1983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마음이 터질 듯
벅차다.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세상을
품고 큰 꿈을 가져라!
담대하라! 몸을 소중히
여기라! 청년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잘 준비하라!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근데 와 이리 덩노?” 오후 두 시쯤 되었나. Central Ave.를 지나가는데 옆 눈에도 번쩍 홀로코스트 (Holocaust) 전시장소가 눈에 띈다. 무심코 서너 걸음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와 들어가보니 전시물과 사진들이 나의 마음을 압도한다. 인디언 학살, 아우슈비츠 학살, 아프리카의 부족 학살 등등. 앨버커키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The New Mexico Holocaust & Intolerance Museum in Albuquerque, 1616 Central Ave SW, Albuquerque, NM 87102, 505-247-0606) 그래, 죽인 건 저들인데 왜 내 마음에 통곡이 나오는가? 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사무치는가?

이제 Rio Grande 다리를 지난다. 태양은 더욱 작렬하고 물! 물! 이미 두 병을 다 털어 넣었고 물을 사려니 마땅치 않다.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그러면서 생각은 다시 젊은 날 1982년 8월 소위를 달고 삼척터위에 처음 천리 행군하던 그 추억으로 돌아간다. 당시 우리 여단의 훈련지역이었던 경상북도-작년엔가 번득 생각이 나서 지도를 찾아보니 바로 그곳, 문경 근처 단산(해발 959m)이었다. 태백산 험한 산속에서 5주간 전술훈련과 유격을 마치고 마지막 6주차 5일 동안 천리(400km 이상)를 걸어 부대로 복귀하던 살인적인 훈련, 그때 그 단산을 넘어가는데 내 팀원들이 물이 떨어져 고전할 때 나는 내 수통을 열어 그야말로 피 같은 물을 주고 나의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모금 마시는데 나의 갈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은 그들이 마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마음에 기뻐던가! 그렇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의 전우, 팀원들이여 보고 싶구나.

또 다른 장면, 한번은 점프할 때 내가 먼저 튀어나가고 낙하산이 퍼지자마자 얼른 돌려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니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뒤따라 나오는데 그들의 몸과 퍼지는 낙하산의 다양한 자세와 모습들이 푸른 하늘에 어찌 그리 근사하던지.. 지금도 마음에 감격으로 사진 찍혀 있다. 그렇다. 1982년 임관하고 광주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서 훈련 받던 중 2주 간의 고만 끝에 특전사에 간 것은 나의 인생 최대의 명예로운 결단이었다. 80

파운드 이상의 군장을 지고 주로 산악지역을 급속행군으로 걸어 5일간 천리를 가는 악명(?) 높은 소위 살인적인 ‘천리행군’, 그리고 초주검으로 갔던 해상침투훈련 등등 그러나 고생은 잠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누렸다. 특히 ‘83년 2개월씩 두 번 한미연합사 독수리훈련 육해공해병합동계획단에 통역장교로 파견되어 미군 그린배례 팀들과 같이 근무했던 시간은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M 60(람보가 쓰던)지대장의 명예를 걸고 눈팅이가 밤팅이 되는 것도 모르고 쏘아 붙여 여단 사격대회에서 250여명을 제기고 우승했던 감격! 그렇다. 하면 된다! 힘든 길을 도전하면 거기 숨겨진 좋은 것이 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이사야 45:3) 싸나이들! 다들 열심히 살아가겠지. 축복합니다. 모두들!

이제 마지막 3-4마일 남았나 싶어 힘을 내어 길을 돌아가는데 아뿔싸! 오르막길이 눈 앞에 떡 혀를 내미는 게 아닌가? Old Coors Blvd.이다. 오르막길은 행군과 구보에 그야말로 ‘웬수에 웬수’라. 얼마나 그 길이 밍던지! 기다시피 붙어 굴러 마지막 신호등을 도니 저 멀리 약 500야드 지점에 우리 교회의 우체통이 하얀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다 왔구나.

그래, 목적지가 있으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리라. 인생은 항해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시 107:30)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고 좋은 나침반과 좋은 지도가 필요하다. 또 동고동락할 동반자가 필요하다. 목적지는 천국이요, 나침반과 지도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동반자는 믿음의 친구이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지만 갈 곳이 분명하면 그 어떤 어려움인들 견디지 못하랴. 종일 먹은 것은 물 두 병이지만 교회를 보니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차오른다.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이 어디 있는가? 교회를 허물려 하는 자 누구인가? 누가 교회를 허물려 하는가? 어려운 시간을 같이한 성도들이 참으로 고맙고, 소중하고, 귀하기만 하다. 그들은 다 일당 십, 일당 백의 하나님 나라 엘리트 군사들이라. Joe Bedi! 미국침례교회 형제인데 벌써 6년째다. 매년 2번씩 와서 히팅, 쿨링 시스템을 순화준다. 페니 하나 받지 않고... Bill은 하나님께 청구하란다.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란다. 어디 그뿐인가? 50갤론 새 보일러를 넣어주고 값이 제법 나갈 터인데 역시 페니하나 받지 않고 친교실 지붕 위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여 냉기를 막아주며 교회에 특별 헌금을 보내는 등등...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며 주의 전을 섬기는 그에게 천 배(신명기 1:8)의 복을 더하소서! 작년 모기지를 payoff하니 올해에는 히스패닉 교회(Iglesia Cristiana La Senda Antigua)를 인도하여 같이 주님의 전을 섬기는 은총을 베푸시는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샌디아 산 위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처음에는 비록 작아 보이나 중천에 이르러 힘차고 밝게 운행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중년의 인생의 날들이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인생 여정을 마칠

〈13쪽에 계속〉



히스패닉 교회 목사 부부(Pastor R. Carreon, Aura Carr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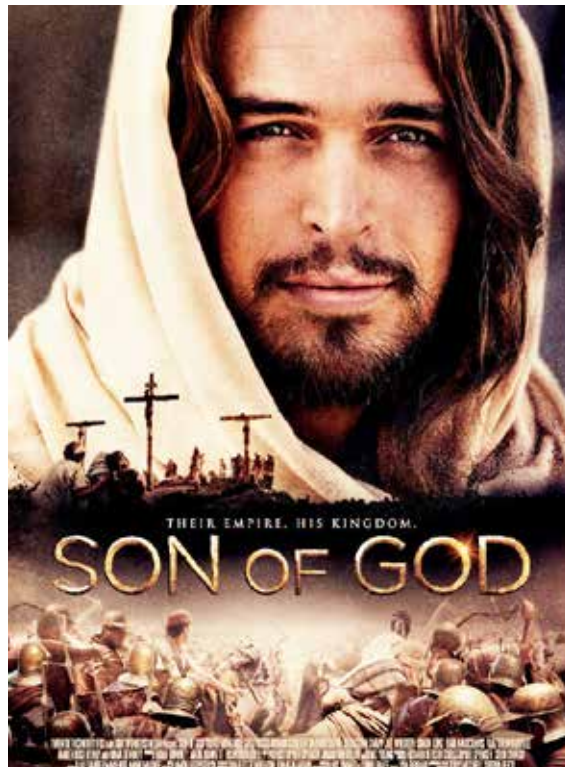
<Son of God>은 어떤 영화일까?

작년 3월 히스토리채널(History Channel)에서 10부작 드라마 더 바이블(The Bible)을 방영한 바가 있다. 영화 Son of God은 드라마 더 바이블을 영화 버전으로 만든 것이다. 금년 봄 영화 노아보다 한달 앞서 개봉되었고 7월에는 DVD가 나와서 Redbox에서 손쉽게 빌려볼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스미스 가게에 있는 Redbox에 가서 이 영화를 빌려와서 자막을 켜 놓고 TV로 보았다. 하루 저녁 \$1.20 티켓으로 리빙룸 극장을 만든 것이다.

이 영화는 예수의 일생을 성경에 쓰인 그대로 충실하게 그려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도 그것에 동감하게 되었다. 요한이 나이들어 귀양 가 있을 때 예수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기간 중에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시해서 죽은 라사로를 살리는 사건 등 몇가지 기적을 추려서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에 이어 40일 뒤의 승천까지 예수의 일생을 다루었다. (상영시간 2시간 18분) 10년 전에 나왔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만큼의 강렬한 인상은 주지 않았지만 충실하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일생을 재현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상상을 통하여 성경 안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직접 경험해 보듯 생각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 영화를 봄으로써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상상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화를 꼽자면 예수가 그물이 가득차게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자 베드로가 "What are we going to do, then?" (우리가 무엇을 할것입니까?)라고 묻자 예수가 "We are going to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지!)라고 답한 것이었다. 이 대화가 나에게 이 영화의 Key word 같이 느껴졌다.

또 한가지 인상적인 대화는 마리아와 베드로의 대화이다.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부활한 예수를 만나 보고 달려가 베드로에게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알렸으나 베드로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리아의 강요에 끌려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다. 무덤에서 나오는 베드로에게 마리아가 "Now do you believe me?"라고 묻고 또 "But He is gone!" (하지만 예수님은 가 버리셨어!) 하자 베드로는 "Gone? No! He's back!" (가시다니? 아니지! 예수께서 다시 오신거지!)이라고 대답한다. 예수의 부활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반된 대화가 나오는 장면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은 지오구 모르가두는 포르투갈 출신의 배우였다. 헐리우드에 와서 오디션을 거쳐 The Bible의 주역을 따냈다. 예수의 인자한 모습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고통에 이르기 까지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영화 평론가의 비평과 관람객의 평가를 함께 소개하는 로튼 토마토 (Rotten Tomato) 웹사이트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론가의 평점(Tomato Meter)은 21%로 상당히 낮은 데 반해서 웹사이트 사용자 / 관객 (Audience)들의 평점은 75%로서 아주 좋은 편이다. 영화 노아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평론가의 평점이 77%로 높은 반면 관객의 평점은 45%로 낮았다. Son of God 영화의 평론가의 평점이 낮은 것은 아마도 성경에 너무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 그리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Box Office 흥행 기록이 이번 달까지 \$5,970만불인 Son of God 이 1억불을 능가한 영화 노아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소개하는 영화로는 10년만에 나온 가장 우수한 영화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글: 편집부 2014.7.6)

나의 노르망디

(12쪽에서 계속)

때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소서!

딸 레이철이 차를 몰고 구조하러(?) 왔다. “거 봐 아빠! 야침 일찍 뛰라고 했잖아!” “아빠가 일부러 훈련상 그런 거야” 좀 아니잖지만 그래도 어찌하랴. 그나마 그 차 놓치면 또 집에까지 13마일을 걸어야 하는데. 짐짝처럼 실려 집에 오니 정말 살 것 같다. 샤워를 하고 반사적으로 저울에 올라가니, 와! 꼭 10 파운드가 빠졌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발바닥이 이상해

뒤집어보니 어이쿠, 직경 5센티 정도 물집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전역할 때 특전표 곰 발바닥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젠 물 발바닥이 되었나 그래도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 저녁 8시 반 다시 영화를 화면에 띄워 온 마음을 다해 보고나니 밤 12시가 다 되었다. 정말 상쾌했던 2014년 6월 6일이였다.

지난 주 아내와 같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주 동안 워싱턴 D.C.에 다녀왔다. 올해로 독립 238주년, 이 위대한 나라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6월 4일,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
(17쪽에 계속)

Paseo / I-25 교차로 공사 현황

Paseo del Norte / I-25 교차로 공사는 총 공사비 9,300만불의 프로젝트로서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 현재 약 50%의 공사가 진전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7월 첫주 현재 약 31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안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입체 교차로의 상상도를 제시했는데 이는 I-25 남쪽에서 북쪽으로 본 상상도이다. 완공되었을때 진출입이 현재히 개선 되는 부분을 그림에 1, 2, 3 번호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1) Paseo del Norte에서 동쪽으로 향하는(Eastbound) 2개 차선이 I-25 남쪽 차선과 연결되면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주행하게 된다.
- (2) I-25 북쪽으로 향하는 2개 차선이 입체 가교를 거쳐 Paseo del Norte의 서쪽 방향(Westbound) 차선과 연결되면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주행하게 된다.
- (3) San Antonio에서 Alameda까지 북쪽방향(Northbound) 고속도로에 4번째 차선을 추가하여 Alameda/I-25 진출 교통도 원활하게 된다.

이곳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는 인근에 있는 다른 두 곳의 교차로도 Paseo del Norte/ I-25 교차로 공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Jefferson/Paseo del Norte 교차로에는 Overpass 가교를 만들어서 동서 방향의 차선은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달릴수 있도록 한다. 이 공사에서 Paseo del Norte의 동쪽 차선은 7월 중순경 완료되어 Jefferson의 신호등에 정차하는 일 없이 Overpass를 할수 있게 된다.

San Antonio/I-25 에는 Overpass 차선을 남쪽(Southbound) 차선과 북쪽(North bound) 차선에 각각 하나씩 늘리는 공사가



I-25/Paseo Reconstruction Project : Looking North

시작되고 있고 I-25의 북쪽(North bound) 차선에서 San Antonio로 진입하는 길(Off-Ramp)은 이미 끝나서 현재는 1차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후에는 2차선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Source: Albuquerque Journal, July 5, 2014) ■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Prudential
AllStar, REALTOR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역사상식

미국의 잉태(독립전야)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영국에서는 농토에서 해방된 계층에서 부농층이 나왔고 그들 중에서 수많은 공장제 수공업 경영주가 나오게 되었다. 또 한편 신흥 지주층도 등장하여 그들 역시 공장제 수공업 경영주가 되었다. 이처럼 농촌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또 공장제 수공업이 진전함에 따라서 부유층은 경영을 확대해서 더욱 더 부유해지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사람도 늘어나 농촌 공동체는 붕괴되고 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되었다.

지주가 농민들의 공유지와 황무지 등을 대개의 경우 비합법적으로 갈취하여 울타리나 담장을 둘러치고 양을 키우는 목장을 만들었다. 이런 현상은 양털 생산이 농업 경영보다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생겼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좁은 땅 덩어리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넓은 신천지로 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종교 때문에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계층 또한 신대륙을 동경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영국 왕이 된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와 그의 아들 찰스 1세(재위 1625-1649)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해 백성들에게 국왕의 통제 아래 있는 국교(성교회)를 강제로 믿게 했다.

이에 대해 일단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원래 1607년 영국인들은 수잔 콘스탄트라는 상선을 타고와 제임스 타운을 이루었다. 이 제임스 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의 영국왕인 제임스 1세를 추앙해서 지은 이름이며 그 옆의 제임스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임스 타운이 확장되어 성립된 것이 버지니아 주이며 주민들은 영국 상인들이 중심이었다.

이보다 13년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이주민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 영국을 떠났다. (추수감사주일이면 듣는 우리들의 이야기) 102명 가운데 과반 수가 넘는 61명은 청교도가 아니었으며 한갓 평범한 기능공과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그 해의 11월 11일 북 아메리카 동해안에 도착했다. 그들의 상륙지점 즉 지금의 보스턴 근처의 플리머스 록에 상륙했다. 자신들이 출항한 추억의 땅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여 지은 이름이었다. (이들이 도착해 먹고 굶주리고 죽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정착과정은 설교를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건너뛰다). 그런데 미국 개척을 의미하는 배로는 메이플라워를 떠 올리며 이야기하지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온 수잔 콘스탄트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사꾼이 탄 배와 종교의 자유와 새 나라 건설을 꿈꾸는 사람들이 탄 배는 역사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종교 뿐 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 예술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건국 당시 청교도들이 이룩한 뉴잉글랜드(현재의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의 6개 주를 말함)지방이 미국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제임스 타운은 들렸지만 플리머스는 가지 않았다.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미 전국의 주축을 이룬 청교도들의 마을 플리머스를



전 용 배 집사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임스타운은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영국 상인들이 이룩한 마을이다. 그러나 플리머스는 영국의 국왕을 못 마땅하게 여긴 청교도들이 정착한 곳이다. 여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와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 된다. 제임스 타운은 다른 것이다.

반면 청교도들에게는 제임스 1세가 원망의 대상이다. 따라서 제임스 타운이 확장되어 성립된 버지니아 주와 청교도들이 이룩한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건국의 두 주춧돌이었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버지니아 주는 영국 상인들 중심이고 메사추세츠는 순례시조(Pilgrim Fathers)가 지도층 이 된 주였으며 보스턴이 그 중심지였다. 이 당시 청교도들은 영국 본국에서는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다. (성공회가 영국 국교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한편 우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당을 지었으며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신대륙에 뿌리내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은 점차 극복되고 미 대륙의 생활은 진전되었다. 현재도 남아있는 런던 포츠머스 등은 영국에 있는 지명을 아메리카 대륙에 적용한 바로 이 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국의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 그중에서 청교도뿐 아니라 웨이커교도, 구교도(천주교) 들도 많았다.

18세기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북부에 뉴잉글랜드 식민지가 성립되었고 마침내 13개 주 식민지로 발전하여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잉태되어 탄생을 보게 된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야기도 건너 뛰어갑시다). 제임스 타운은 화재 후에 새로 건설하여 지금은 윌리엄스버그로 이름을 바꾸었고 강 이름은 그대로 제임스 리버이다. ■



THE INGLES
Company Realtors

부동산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수필

언니!



최미나 교우

저 미나 예요. 지금은 새벽2시. 오늘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언니를 만나고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고 특히 한국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너무 좋아요. 만약에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렸어요. 언니같이 아름다우신 분을 만나게 되어 마치 한국에 있는 친언니(목사님)같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떻게 표현 할 수가 없군요.

한국에 갔을 때 친언니의 생활을 지켜보면 너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언니는 “애야, 너무 걱정하지마라. 내가 택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일이고, 그리고 내 육신과 마음은 하나님께 다 맡긴 일이지 난 두려운 것 없다”며 오히려 동생인 저를 안정시키셨지요. 그런 언니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잠을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네요. 한국 언니 생각할 때마다 전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언니, 전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남편에게 이해시키지 않아도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니까요.

언니, 괜히 주책을 떠는 것 같지요. 유금님 언니를 알고부터 한국 언니가 더 생각이 나서 그래요. 성격이 너무 닮았어요. 언니, 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도 아닌 그냥 그 중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부족한 것도 많아요. 잘못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 영국 신사 같으신 분이었고, 부자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버릇없이 자랐다고 모두들 그렇게 얘기 했어요. 한국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돌아 가셨지요. 엄마는 한국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돌아 가셨지요. 아버지가 교회를 반대하셨지만 돌아 가실 때 회개 하셨다고 교회장로이신 오빠가 이야기 하셨어요. 엄마는 키가 작고 피부가 흰 동양미인이셨지요. 엄마 쪽은 교육가 집안이였어요. 엄마는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지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언니 전 Las Vegas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 왔어요. 이곳에 이사를 와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그저 그런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되지요. 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훤히 내다보이지요. 값있는 삶이었는지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분명해지지요. 언젠가 우리는 그동안 지녀왔던 모든 것을 놓아 버릴 때가 오지요. 반드시 오지요. 그 때 가서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지요. 본래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며,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모든 가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것이 너무도 잘못 되었다고 느껴지고 또 생각될 때는 앞뒤려 기도하며 또 회개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니까요.

언니, 우리는 간단하게 살아요. 금전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부자 아니예요? 조그만 집이 있고 알뜰하게 서로 아끼면서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에 우린 항상 감사해요.

언니, 어제는 하루 종일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장미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또한 Home Depot에서 꽃을 사서 화분에다 잔뜩 심었어요. 봄만 되면 심는 꽃들이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언제 날씨가 따뜻하면 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언니와 저는 식성이 비슷하기에 우리 함께 닭고기를 굽고 야채와 과일 등으로 식사해요. 언니네와 우리 집은 거리가 멀어서 늦은 점심 아니면 이른 저녁이 좋겠어요. 밤늦게 운전하는 것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언니, 전 별로 말은 없지만 글을 쓰는 근성이 있어요.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니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언니 안녕히 주무세요. ■

목상 호흡

〈10쪽에서 계속〉

것이였다. 5분도 넘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은행원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시계를 거듭 쳐다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은행원에 대해 화도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들은 “목상호흡”이 생각났다. 일단 눈을 감았다. 생기를 불어넣 으시는 하나님을 목상하면서 천천히 조용히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숨의 양을 의식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조절하면서 내쉬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바쁘고 복잡했던 주변상황은 없 어지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에만 집중하면서 알 수 없는

기쁜 마음이 생겨났다. 다시 숨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면서 마음은 고요한데 몸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손님!

최 집사는 은행원이 부르는 소리에 갑자기 눈을 떴다.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부르는 은행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을 부르고 있는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모습이였다. ■

나의 노르망디 <13 쪽에서 계속>

(NRC)는 인류의 화성 이주를 국가 목표로 지목했다. 참 멋지다. 세계 최강대국다운 비전이다. 우리도 우주적인 포부를 가져보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 밝고 빛나는 태양,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돈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한인들이 되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 좀 철이 드는 것 같고, 좀 사람이 되가는 것 같고, 좀 목사가 되가는 것 같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모두 다 사랑스러울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고마울 뿐이다. 앨버커키를 사랑하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하는 좋은 일이다. (톨스토이)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만물을, 특별히 외아들 예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하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자.

“하나님이여! 앨버커키 한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큰 복을 내리소서! ■



침례교회를 돕는 천사 Joe Bedi 와 부인 Vickie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앨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앨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앨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hr/>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hr/>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hr/>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hr/>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hr/> 건축/페인트 Painting <hr/>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hr/> 공인회계사 CPA <hr/>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hr/> 셋방 ROOM RENT <hr/> \$350/mo +DD \$100 + 1/3 Util. Available date: Immediately NON-Smoking and No-Pet. Phone : 505-352-5775 E-Mail: cyoh2003@yahoo. co.kr Contact:오영 권사 <hr/> 리커스토어 Liquors <hr/> Kelly Liquors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hr/> 부동산 Realtors <hr/>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r/>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hr/> 세탁소 Dry Cleaners <hr/>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hr/> 의류 Clothes <hr/>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hr/>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r/>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hr/> 종교 Church <hr/>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h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hr/> 치과 Dental Clinic <hr/>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hr/> 태권도 TaeKwonDo <hr/>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hr/> 한의사 Acupuncture <hr/> Dr. Chang: (장상순) 2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Dr.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hr/> 화랑 Gallery <hr/>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hr/> 화원/원예 Nursery <hr/>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Fax 575-523-7700)</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편집후기</p> <p>세월호에 관련된 글로 동아일보 문화부 이진영 차장의 <부끄러움도 기억하자>란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게재 허가를 해주신 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미국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도 부끄럽지 않은 한인사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자랑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전세계 “수업의 달인” 대회에 1등의 영예를 얻은 소식을 전하는 신미경 교장의 글은 우리 뉴멕시코 한인들에게 기쁨과 자긍감을 주었습니다. 1등의 영예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신 이은주 사모께서 쓴 한글과 성경의 상호간에 미친 역사적 고찰도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기사였습니다.</p> <p>아시아 문화축제에 고전무용으로 수고하신 여러분, 온천 관광을 기획하고 봉사하신 한인회 여러분의 노고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든, 한인 어르신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든 모두가 한인사회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하시면서 마라톤을 뒀신 윤성렬 목사님께서서는 다음에 또 마라톤을 뒀실 때는 반드시 사진 기사를 불러서 마라톤 뛰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재미 있는 기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글에서는 저희들의 상상만으로 넘어갑니다. 김기천 목사님의 <묵상호흡>은 은행에 가서서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느라 답답할 때 묘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랑이해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정길 교수님의 ‘호랑이-백수의 왕’을 더 재미 있게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수필 감사드립니다.</p> <p>본 교회 교우들의 글은 최미나 교우의 간증문과 전용배 집사님의 미국 역사 얘기입니다. 다음호에는 더 많은 여러분의 글이 실리길 원합니다. 다음호 (9/10월) 원고 마감은 8월25일까지 입니다. 편집부를 대표해서 이경화 2014년 7월7일</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산타페 Santa Fe</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종교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는 505-269-0691</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종교 Church</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하밍톤 Farmington</p> <p>종교 Church</p> <p>하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클로비스 Clovis</p>	<p>라스쿠르세스 Las Cruces</p>	<p>가게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종교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p>		<p>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4년 7/8월호 발행일 : 2014.7.7</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Sat 11:00am-9:3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292-8222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 NM 98112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